

나주시 '임진왜란 근왕의병' 출정식 재현

27~29일 '나주 문화유산 야행' '8가지 밤' 테마 전시·체험·공연 '빛의 향연' 레이저 쇼 볼거리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전국 최초로 근왕의병을 일으켜 한양을 수복하고 호남을 지켜낸 전라도의 병 정신의 산실인 나주에서 과거 의병출정식이 처음으로 재현된다.

나주시에 따르면 의병 출정식 재현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나주읍성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4년 나주 문화유산 야행'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다.

이 행사는 문화유산 가치의 재조명을 위해 국가 유산청(옛 문화재청)이 진행한 공모 사업에 선정

돼 올해 4회째를 맞는다.

축제 기간에는 작은 서울, 소경(小京)으로 불렸던 나주읍성 안 금성관(조선시대 최대 객사·보물) 호남 최대의 나주향교, 나주목사내아 등 문화유산을 야간에 개방해 가을밤의 고즈넉한 낭만을 선사한다.

올해는 '천년의 빛, 나주를 비추다'라는 주제로 빛을 테마로 한 8야(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첫 야행 행사는 내달 27일 오후 7시 나주 금성관에서 막을 올린다.

궁중에서부터 평민까지 다양한 의상을 감상할 수 있는 조선시대 복장 패션쇼와 무예 시범, 국악 공연 등이 진행된다.

'빛의 향연'을 주제로 펼쳐지는 레이저 퍼포먼스에선 나주의 찬란했던 1000년 역사의 시간을 빛

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현재의 나주를 비춘다.

28일에는 임진왜란 당시 전국 최초의 근왕의병을 일으킨 김천일 선생의 의병장 출정식 퍼레이드를 처음으로 재연한다. 의향 나주의 뿌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 문화유산 야행'은 개막식, 메인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사진전 전시, 시·시·만들기 체험, 문화·예술 공연 등이 축제 기간 다채롭게 진행된다. 부스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밤에 보면 더 아름답고 웅장한 천년고도 나주의 문화유산을 이번 행사를 통해 만나보시길 바란다"며 "나주의 문화유산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 친밀한 문화 향유 공간으로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 교통안전부문 종합대상 수상

광주·전남 교통·사회안전 대축전

담양군이 '광주·전남 교통·사회안전 대축전'에서 교통안전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올해로 16회차를 맞은 이번 대축전에서 담양군은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담양군은 관광객과 군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람과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고, 민간 사회단체 및 경찰서와 함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쳐왔다.

전남교통연수원과 선진교통문화 정착 협약을

맺고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에도 집중했다.

특히,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죽녹원, 국수거리, 관방제림 등 주요 관광지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말과 연휴에 교통안전 내원을 배치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군민과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화순 남산공원 새 단장 사계절 테마 공간 조성

화순 남산공원이 조경 공사를 마치고 도심 속 정원 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

산책로와 잔디 언덕을 중심으로 키가 큰 나무를 옮겨 심어 녹음이 있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수국 정원과 물 정원, 가을 그라스(풀) 정원, 겨울 자작나무원 등 사계절 테마 공간을 조성했다.

산림청 도시열섬 완화 공모 사업 일환으로 사업비 30억원이 투입됐다.

군은 남산공원에 야간 경관 조명을 더하는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새단장한 화순 남산공원 수국정원.

"청렴도 1등급 가자" ...장성군 청렴·축제 결합 페스티벌

공직자 200여명 참석 의지 다져

2년 연속 청렴도 2등급을 유지 중인 전남 장성군이 청렴과 축제 콘텐츠를 결합한 페스티벌을 통해 '청렴도 1등급' 달성 의지를 다졌다.

장성군에 따르면 새로운 시도로 마련한 '청렴·축제 페스티벌'이 지난 28일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김한중 장성군수와 공직자 200여명이 참석해 가운데 열렸다.

페스티벌은 '군수와 함께하는 청렴 토크 콘서트', '청렴 교육', '청렴 연극'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 군수는 공직자들과 인사업무 공정성 확보, 갑질 방지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공직자들이 휴대폰 QR 코드 접속을 통해 문자 메시지로 '오후 6시 칼퇴근 문화가 정착되면', '군수님 찾아가겠다'는 민원인 어떻게 응대할까요' 등의 질문을 대공연장 화면에 남기면 김 군수가 즉석에서 진솔하게 답변해 호응을 얻었다.

'청렴 교육' 순서에선 이윤미 국민권익위원회



김한중(맨 왼쪽) 장성군수가 지난 28일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청렴·축제 페스티벌'에서 진행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가 강연을 맡아 청렴에 관한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는 '참여형 강의'로 진행했다.

마지막은 '청렴 연극' 상황극을 통해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을 이용해 수익을 취하는 행위', '개인 이익을 위해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의 사례를 함께 알아보고 참석자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장흥군, 신규 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8명 선정 가구당 최대 5000만원

장흥군이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전입세대 희망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작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장흥군으로 새롭게 전입한 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루 노후 주택을 소유한 귀촌인들에게 최대 500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전월세 거주자나 농·어업인에 한정돼 있던 주거 지원 정책의 범위를 확대해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택 소유 귀촌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9일 열린 '전입세대 희망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에서는 올해 지원 대상자로 8명이 최종 선정됐다.

군은 지난 5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한 후, 주택 노후도, 전입 세대원 수, 수리비 부담률 등을 검토해 2차례의 선정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천영 장흥군 부군수는 "그동안 전입자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귀촌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 신규 전입자들을 적극 유치하고 귀촌인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군, 일자리 우수기업에 1400만원 지원

함평군이 전남도가 주관하는 2024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고용 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환경 개선자금 1400만원을 지원하며,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함평군에 본사 또는 주공장이 위치하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역대표 산업 분야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함평군청 누리집에 계

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필요한 신청서류를 오는 13일까지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에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함평군에서는 대한철강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그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2년 간 행정적·재정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고용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합당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 촉진에 노력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